

김성복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인체조각을 통한
내면적 소통에 대한연구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김 준 기

인체조각을 통한
내면적 소통에 대한연구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김성복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김 준 기

인 준 서

김준기의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한 시대의 예술은 그 시대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예술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산물로써 인간의 내면세계를 반영하며 내면은 삶을 통해 형성되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을 통한 표현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 정신활동이며 원초적 본성이다. 인간은 이러한 예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외부와의 소통의 경계를 풀고 자신을 재조명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타자와의 공감을 형성하는 장으로 작용한다.

현대의 과학문명으로 인한 산업화는 이 시대의 가치를 물질로 규정하며 인간마저도 사회의 부속품으로 전락시켰다. 이에 사회적 존재로써 인간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진실한 소통은 단절되고 고립과 소외로 인한 인간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기에 이르렀다.

소통의 단절은 심리적 병리를 동반하며 현대인의 정신적 특성인 공허, 고독, 불안감을 낳았다.

본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써 개인의 삶으로 다가온 현실의 문제와 심리적 갈등을 작품을 통해 직면하고자 했다. 본인에게 있어서 창작이란 소통의 창이며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는 치유제 였다.

본 논문은 2003~2007년 현재까지의 작품을 토대로 작품형성의 정신적 배경과 개별 작품 간의 분석을 내용으로 하여 현재 본인의 작업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본론의 1장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소통이 갖는 의미와 현대인의 소통단절로 인한 내면의 위기감을 인체로써 표현하게 된 작품의 정신적 배경을 창작이 갖는 치유의 기능과 함께 세 단락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작품

의 조형적 특성을 이미지 표현과 공간연출의 두 단락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3장에서는 작품의 내용적, 표현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결론에서는 연구를 통한 결과를 작업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의 계기로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1. 작품형성배경	3~8
1) 인간에게 있어서 소통의 의미	3~5
2) 소통의 매체로서의 인체	5~7
3) 창작을 통한 자기치유	7~8
2.조형적 특성	8~10
1)단절과 고립의 이미지	7~8
2)내면적 공간연출	8~9
3. 작품분석	10~18
III. 결론	19~20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당신은 나에게... 합성수지, 2950X1700X700(mm), 2007 12
- 【작품 2】 당신은 나에게... 합성수지, 2500X1300X1600(mm), 2007 15
- 【작품 3】 당신은 나에게... 스텐, 가변크기, 2007 17

I.서론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와는 상대적으로 정신적 빈곤의 시대라 불리워지고 있다. 물질만능주의로 인간마저도 사회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인간관계 또한 실리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는가 하면 사회의 거대화로 개인의 자아는 소멸되어가는 위기의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인격적 의미의 진실한 소통의 단절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일 수도 있을 것이다. 소통의 단절은 정신적 위기감으로 이어져 현대인의 정신적 특성인 공허, 고독, 불안감을 낳았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외부와의 소통을 시작한다. 인간은 홀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인 소통의 단절을 경험한 개인은 필연적으로 심리적 병리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 결국 단절은 또 다른 단절을 부르게 되며 이 악순환의 고리는 자아상실을 초래한다.

현대를 사는 개인으로서 본인도 소통의 상실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와 고통을 경험했으며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고 자신을 다시 회복하기 까지 지나간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본인은 인체를 통해 이러한 심리를 표출하려 했으며 이는 자기치유의 첫 과정이었다. 인간의 심상을 표현 할 때 인체는 가장 적합한 매체 일 수 밖에 없다. 의문의 여지없이 인체는 인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인체를 통해 내면세계를 형상화함 으로서 인체는 본인에게 내면과 현실을 이어주는 통로이며 본인의 내면이 투영되는 심상의 창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소통의 의미를 재고하고, 소통의

단절로 위기에 처해 있는 현대인의 자아를 동시대를 살고 있는 구성원의
입장으로 조명하며, 이를 근거로 한 작품의 연구 분석을 통하여 더 심도
있는 작업을 이루고자 하는데 있다.

II. 본론

1. 작품형성배경

1) 인간에게 있어서 소통의 의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BC322)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로써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였다.

그의 말이 시사하듯 인간은 한 무리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며 타인과 끊임 없이 상호작용을 교환하며 살아간다.

인간의 상호작용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상호활동은 소통의 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된다.

오랜 시간 소통은 우리생활 속에 너무 밀접해 있었던 이유로 당연하고 단순한 현상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으나 현시대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는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의식구조, 나아가서는 생활양식까지 기존의 그것과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인에게 있어서 소통의 문제를 다시금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소통의 개념에 대한 고찰로 시작하고자 한다. 소통은 인간과 인간 간에 어떠한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행해지는 의도적이고 상징적인 행위이며 상호작용의 한 과정이다.¹⁾

보통 일반적인 소통의 의미는 ‘서로 막힘없이 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소통의 개념적인 의미는 전달개념으로서의 소통과 공유개념으로서의 소통,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달의 성향을 띤 소통은 다분히 이성적이며 객관적인 이해 관계를 성립시킨다. 이러한 소통은 지식의 전달이나 이익을 의도한 것이

1) 강길호, 김현지, 「커뮤니케이션과 인간」, 한나래, 1995, p.27

라 할 수 있다. 반면 공유개념으로써의 소통은 소유로서의 공유 개념이 아닌 타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의식을 공유하려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개념의 소통은 직접적인 양상의 발전을 이뤄내기 보다는 감성과 이성의 조화로운 이해관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적이며 실질적인 발전을 이뤄 낼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부의 의미를 외부로 전달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쳐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작용, 역작용과 함께 상승, 조화, 정화가 일어나 의미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외부 이미지와의 소통은 관념의 세계에 존재하는 무형의 의미를 유형으로 실체로 상징화 시켜 주기도 한다. 바로 여기가 예술로써의 소통이 시작되는 근거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목적을 가지고 소통에 임한다. 소통으로 인해 의사를 교환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불협화음을 극소화하고 합의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했듯 현대 사회의 구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게 되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 또한 새로운 시대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매우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복잡한 정보화 사회로 발전되었다. 디지털이 상용화 되고 수많은 디지털 미디어들이 생겨 났으며 그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표면적으로 사람들의 소통은 더욱 자유로워진듯 하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구성원들을 매우 밀접하게 상호 연결시켜서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만들기에 이르렀다. 디지털 미디어인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간접적, 획일적인 소통의 형태에 익숙해졌고 자유롭고 확대된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더욱더 그것들에 의존하여 생활하게 되었다.

인간은 군중 속에 존재하면서도 개인만의 자아를 구현하길 원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타인과의 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과정은 직접적인 관계를 거친 소통으로만 가능한 것이며 미디어에 의한 획일적인 소통으로는 충족되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로서의 소통을 회복하는 길은 잠식되고 단혀져 있는 자아를 인식하고 표출하며 동시에 타인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전제로 한 관계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소통의 매체로서의 인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체는 시대성과 사회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형상화 하는 대상으로, 또한 존재로서의 가치가 지니는 상징성과 의미로 인해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주제이자 중심이 되어 왔다.

이렇듯 인체는 외형적으로 표현된 형상들을 알아보는 대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인간의 내면세계를 함께 나타낼 수 있는 거울로서 해석 될 수 있는 것이다.

인체는 ‘트라우마’²⁾, ‘페이소스’³⁾같은 인간체험의 정서를 생생하게 환기시키면서 생물학적 욕구와 결부하는 측면도 지니고 있다.⁴⁾ 그래서 예술가는 내적으로 자체의 사고나 의식, 무의식에 대한 호기심과 외적으로 표출되는 인간의 모습, 인체가 표현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것은 예술가 자신이 인간이라는 점도 일정부분 작용했으며 가장 관능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흥미를 끄는 대상물인 인체 자체의 아름다움 때문이기도 하다. 인체는 각 부위, 기능마다 주는 느낌이 다르나 어색하지

2) [trauma] 신체적인 손상 및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인 장애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병

3) [pathos] 작품이 수용자에게 불러일으키는 연민이나 동정 비애감 같은 예술작품의 감정적·주관적 요소를 말한다

4) 케네드 크라크, 이재호 역, 「누드의 미술사」, 열화당, 1982, p.13

않게 연결된 골격과 근육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표현된 굴곡의 변화에 의해 예술가들로 하여금 미적 충동을 느끼게 한다.

결국 인체는 심상의 표현으로써의 한 측면과 감각적 매력의 구현체로서의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중요한 표현소재로 사용되어왔다.

또한 예술가는 이러한 인체에 의미를 부여해 형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기대감과 만족감을 주는 상징으로 변모시켰다.

인체는 그동안 수많은 예술가들에 있어 다양한 표현의 소재로 사용되어져왔다. 그것은 다른 어떤 형상보다 인간에게 친숙한 형상이므로 작가의 상상, 감정 등을 표현 하는데 있어 가장 교감이 용이한 대상이며 인간정신의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과 의식 상태를 긴 설명 없이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인간정신의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작가와 외부와의 소통을 극대화 시키는 요소이다.

본인이 주장하는 소통이란 인간과 인간 혹은 본인과 자아에 대한 소통이다. 본인 또한 소통을 이야기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세계와 사회적 현실을 동시에 표현 할 수 있는 매체로써 인체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작업하기에 이르렀다.

예술작품은 작가 자신의 내면적 표출이요, 주장이요, 소리라 본다.

본인에게 있어서도 작품으로 형상화된 인체는 타자인 동시에 작가 자신이기도 하며 온갖 기억들을 불러일으키는 기억의 집합소이다. 본인이 일상을 통해 경험했던 다양한 현상들에 의한 주관적 심상이 인체의 형상을 빌어 소통의 기호로 가시화 된다. 그러므로 작품은 본인의 내부세계와 외부세계를 연결해주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작품으로 표현되는 정서적 언어를 통해 타자와의 소통을 시도한다. 작품을 바라보는 타자에게 작가자신의 내면의 메시지를 드러냄으로써 본인과 타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직접적인 소통의 계기를 마련

한다. 이는 관객에게 관객 자신의 닫혀있던 내면을 일깨우는 또 다른 소통으로 연결되기도 하며 이러한 소통의 연쇄작용은 결국 소통의 단절로 야기된 본인 자신의 내면적 상실감과 고립감의 소멸로 이어지면서 자기치유 과정을 동반하게 된다.

3) 창작을 통한 자기치유

조형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동시에 자기 표현으로 인한 소통 작용으로 자아의 성장을 추구함은 예술의 본래적인 특질이다.

예술작품 창작과정에서의 자기치유적인 면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이론가로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크라머(E.Kramer, 1915~)⁵⁾의 견해에 의하면, 창작활동은 미해결 상태의 문제를 상징이미지를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창작을 통해 자기표현이 이루어짐으로써 억압되었던 내면세계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받게 되며, 때로 억눌렀던 파괴적인 에너지를 창작과정에서 분출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긍정적인 원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직시하기 두려워했던 심리구조를 작품 속에서 재 경험 하고 그것을 해결하려 애쓰는 과정은 분열된 의식구조를 상징적으로 통합하여 내면을 치유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통제하기 어려운 위협적인 대상으로 느껴졌던 감정적인 부분들은 창작활동을 통해 관찰 가능한 상태가 된다. 예를 들어 불안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억압되고 있는 동안은 언제 폭발하여 의식을 침범할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강한 긴장상태가 계속되지만, 창작자 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불안감에 맞서 창작표현이라는 상징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면 그 불안은 다룰

5) 비엔나출생의 예술가이며 치료사인 크라머는 아동미술치료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으며, 그림의 치료적 속성은 그림에 대한 환자의 연상을 통하여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함으로써 자아가 성숙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즉 미술작업을 통하여 환자 자신의 파괴적, 반사회적 에너지를 분출함으로써 그것을 감소시키거나 전환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 있는 현실세계 속의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로 모습을 바꾼다. 여기서서는 시각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태로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이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통제력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자신감과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감정을 가시화 함으로써 내면에 존재하던 억압적인 요소들을 외부로 표출시키고, 작품 속에 나타나는 상징적 이미지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승화가 이루어진다.⁶⁾

승화는 지난 시간에 대한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게 하며 자기치유의 자양분으로 작용한다.

본인은 직시를 피해왔던 문제를 작품으로 드러내는 창작과정을 통해 외적 세계와의 단절로 인해 겪게 된 심리적 병리상태를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으며 본인의 작품이 그 감정적 순화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을 지속하고자 한다.

2.조형적 특성

1)단절과 고립의 이미지

인간은 사회생활 과정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하며 나아가서는 감정적, 신념적, 행동적으로 유대를 형성하게 된다. 인간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호 의존적인 ‘나’와 ‘타자’는 서로간의 진실함이 담긴 참된 인간관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그 특질로 인해 개인의 정서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인간관계의 직접적인 교류가 줄어들어 상호간의 합의와 일치성을 구하기 힘들게 됨으로써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6) Ingrid Riedel, 정여주 역, 「움의 분석 심리학에 기초한 미술치료」, 학지사, 2000, p. 42-45

결국 소통의 단절은 현대인에게 인간소외와, 고독, 불안 등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가져왔다. 이런 현상은 인간의 삶을 황폐하고 고독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본인의 삶속에도 이러한 심리적 병리가 존재한다.

소통의 단절로 인한 소외와 고독, 고립은 본인의 내면에 어두운 한 면으로 존재하며 서서히 자아를 잠식하고 위협하는 듯 했다.

작품의 전체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흰색은 본인에게 따뜻함이 결여된 차가움의 이미지이며 외부와의 접촉을 저지하는 결벽증의 이미지이다.

단절과 고립이 계속 될수록 흰색의 차가움은 뺏속까지 스며들고 자아는 점점 견고한 자기만의 세계로 움츠러 들었다. 무기력하게 다리를 움츠리고 누운 인체의 형상은 이러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고립과 소외를 경험한 자아는 현실과 내면의 경계에서 갈등하며 출생이전의 모체로 돌아가고자 하는 퇴행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백색의 무표정한 인체는 본인이 심리적으로 경험했던 이러한 현상들은 단적으로 표현한다.

2)내면적 공간연출

표현의 욕구는 인간최초의 기본적 정신활동이며 원초적인 본성이다. 새로운 현상에 대한 강렬한 표현 욕구는 불가항력적인 충동으로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면세계를 표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삶에 대한 인간의 끈끈한 애착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의 동기는 개개인의 삶과 관계되며 삶으로부터 체험하고 느낀 것을 표현하는 일은 보다 진솔한 작품으로 이어진다.

예술은 현실과 내면의 세계를 이어주는 소통의 통로이다. 인간의 내면세계가 형상화 되기 까지는 무의식이 그 촉매로 작용한다. 이것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세계의 심상들을 구체적 이미지로 형상화 시킨다.

본인의 작업에서 표현되어지는 인체는 모방으로서의 인체가 아닌 내면적 공간의 연출로서의 이미지와 형상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작품으로 연출된 내면적 공간속의 자아와 진솔하게 마주하며 그 과정을 통해 자신과의 진정한 소통을 이룰 수 있었다고 본다.

본인이 연출하고자 했던 내면적 공간은 본인의 경험으로 집적된 심상과 감성, 기억이 공존하는 복합적이고 심리적인 공간이고 독자적이고 은밀한 공간이다. 그 속에는 존재적 자아가 내재되어 있으며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되고 공감의 장을 형성한다. 그런 과정들은 본인과 관객 모두에게 내면적 공간과 자아를 재인식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본인은 작품을 통해 단절되었던 소통의 문을 열고 내면세계를 가시화 하는 과정을 거쳐 마음 깊이 고여 있던 소외감과 고립감을 표출시켰다. 본인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이나 행동 생각들을 작품을 통하여 은유적이거나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려 하는 의도가 숨어져 있다. 그것은 본인이 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 등을 작품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분출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러자 그것들이 만들어내던 어두움과 불안감이 해소되고 스스로의 고립을 깨고 외부와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창출되게 되었다. 실존주의⁷⁾ 철학자들의 말처럼 그 소외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본인이 소통의 회복과 치유에 대한 소망을 상실감이나 분리감을 주제로 삼아 표현하려 하는 것도 같이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3.작품분석

무채색으로 채색되어진 두 인체는 서로 대비되는 듯 하면서도 유기적

7) 20세기 초, 중반에 세계적으로 일반대중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지지를 받았던 철학으로 구체적인 인간 실존에 대한 문제와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무채색은 가장 완벽한 색이라 할 수 있다. 가산혼합(加算混合)으로 만들어지는 흰색은 빨강, 노랑, 파랑의 세 가지의 색의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생성될 수 있는 색이기도 하다. 이것은 그 세 가지의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져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결과물인 것이다. 한 가지라도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생할 수 없는 색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은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무채색의 사용은 색상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절제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졌다. 그리고 도장 후 사포질을 통하여 외부의 색상들이 작품에 반사되어지는 것들을 방지하였다. 이는 광택이 없는 완벽한 무광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

남과 여는 인체를 통해 각기 다른 표정과 형상으로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지만 그들이 속한 공간은 복합적인 양상이 공존하는 내면적 공간으로써 결국 그들은 같은 공간 안에 있었던 동일한 자아라 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 했듯 인간은 소외 속에서 비로소 자기애를 느끼며 진실한 자아를 되찾게 되는 것이라 한다.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이상적 자아로서의 자신이고 그녀가 담담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심리적 갈등인 것이다.



【작품1】 당신은 나에게..., 함성수지 2950 X 1700 X 700(mm), 2007

【작품1】 당신은 나에게 ...

제작연도 : 2007년

재 료 : 합성수지

크 기 : 2950 X 1700 X 700(mm)

제작방법 : 점토 작업 후 합성수지 성형. 우레탄 도장

작품1에서는 무채색으로 도장되어진 인체의 무기력한 외상을 통해 외부와의 단절과 그로인한 고립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전체를 뒤덮고 있는 흰색은 본인에게 있어서 순수와 고결의 의미가 아닌 공허의 색으로써 사용되어졌으며 고독과 상실감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색이다. 이는 본인의 기억에서 비롯되었는데 열병으로 찾아간 병원에서의 새하얀 벽에서 본인은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밝은 형광등 아래 파괴하기까지 했던 그 벽은 지금도 막연한 공포의 잔상으로 떠오른다. 인체가 본래의 색을 잃고 흰색으로 뒤덮여 있는 것은 내면의 존재가 고립으로 잠식되어 있음을 말한다.

바닥에 펼쳐진 모피 또한 흰색이지만 모피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포근한 이미지는 위의 작품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모피는 공허가 감도는 공간에서 자아의 회복을 염원하는 작은 안위이다. 본인에게 내면적 공간은 여러 양상을 지니고 있는 무형의 복합적인 공간이다. 모피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이러한 자아의 유동적인 영역을 나타낸다.

작품1의 인체는 웅크린채 누워 손위의 작은 사람을 응시하고 있다. 그 작은 인물들은 손바닥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귀에도 다리에도 등 뒤에도 그를 바라보며 둘러져 있다. 인체의 표정과 동작들은 하나 하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며 실제보다 크게 제작된 인체와 비례하여 마치 동화에나 나오는 듯한 작은 모습으로 제작되어졌다. 그 작은 인체들은 모두 다른 인물인 듯 하나 결국은 그의 영역 안에서 공존하는 그의 다른 모습들이거나 외부세계에서 투영된 또 다른 자아들을 상징한다. 그들은 작지만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고립과 단절을 이야기 하는 그와는 다른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들은 외부의 심상이며 기억이며 현실과 연결되는 실마리인 것이다. 그는 요정처럼 그의 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형상들을 바라보며 자아의 회복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다.



【작품2】 당신은 나에게..., 합성수지 2550 X 1300 X 1600(mm), 2007

【작품2】 당신은 나에게...

제작연도 : 2007

재 료 : 합성수지

크 기 : 2500 X 1300 X 1600(mm)

제작방법 : 점토 작업 후 합성수지 성형.

작품2의 인체는 담담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다. 그녀의 주변에도 역시 작은 인체들이 놓여져 있고 그녀도 모피위에 배치시켰다.

그녀가 자리한 모피위의 공간도 그와 마찬가지로의 내적 공간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녀는 작품1의 그와는 상반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그가 단절과 고립의 내적 공간에 은둔하고 있다면 그녀의 공간에서는 편안함과 안도감의 공간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그녀의 공간에서 그녀는 잠식된 자아가 아닌 주체적인 자아로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녀의 백색은 더 이상 불안과 공포와 공허의 색이 아닌 이상(理想)의 색이다. 그녀가 속한 내면의 공간에서는 공존하는 또 다른 자아의 통제가 가능하며 이로써 그녀는 이상적인 내면세계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녀가 내면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본인은 역시 소통의 회복에서 찾고자 한다.



【작품3】 당신은 나에게..., 스컬피 성형후 우레탄도장, 가변크기, 2007

【작품3】 당신은 나에게...

제작연도 : 2007

재 료 : 합성수지

크 기 : 가변크기

제작방법 : 스킵피 성형후 우레탄도장

의인화된 동물이나 얼굴에 이목구비가 없는 이 작은 인체들은 다양한 형태 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이야기들은 작은 사람들이 커다란 사람에게 이야기 하고 싶은 것 들이거나 혹은 커다란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다. 그들은 탈을 씌으로써 내면의 이중적 심상을 직설적으로 나타내는가 하면 얼굴을 없앴으로써 자신을 위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본인의 기억 이기도하며 현실의 욕구가 되기도 한다.

Ⅲ. 결론

예술은 인간의 내면세계와 상호교류를 창작활동을 통해 억압된 감정을 표출시키며, 인간의 내면세계를 작품으로 형상화 시킴으로써 자기 심리에 대한 자각과 타인의 공감을 유도한다. 이처럼 창작의 과정에는 내면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치유적인 힘이 있다. 창작활동은 내면세계의 심상표현이지만 언어적 표현과는 달리 무의식의 작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창작을 통하여 의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며, 심리적 병리에 대한 각성과 고립된 자아의 소통을 회복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본 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의 인간관계 속에서 소외되고 고립되어 공허감과 괴리감으로 얼룩진 개인의 내면세계를 인체형상을 빌어 외부로 발산함으로써 창작의 과정이 소통회복과 자기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신적으로 조화로운 삶이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함으로부터 시작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가운데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자각이 출발점이 되어 작품제작을 통한 자기인식과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게 됨은 본인에게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작품의 새로운 방향성을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작품제작을 통하여 본인만의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이루어 갈 것이며 외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본인의 내면에 국한되었던 소재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본인의 작품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모호했던 부분들을 확고히 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작업에 임하게 되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의 자전적 경험에 기인한 본인의 작품

이 동시대의 타인의 내면에 긍정적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길호, 김현주, 「커뮤니케이션과 인간」, 도서출판 한나래, 2000
- 권석만, 「우울증」, 학지사, 2001
- 김종재, 「현대사회와 인간관계」, 박영사, 1993
- 심윤중, 「현대사회와 인간」, 지학사, 1985
- 안형관, 「인간과 소외」, 이문출판사, 1992
- 임종만, 「인간관계의 이해」, 청람, 2004
- 루돌프 아른하임, 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미진가, 2003
- 아놀드 하우스, 김진역 역, 「예술과 소외」, 종로서적, 1981
- 에른스트 피셔, 한철희 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돌베게, 1984
- 잉그리트 리델, 정여주 역, 「융의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미술치료」, 학지사, 2000
- 바실리 칸딘스키, 권영필 역,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열화당, 1979
- 수잔.K.랭거, 이승훈 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고려원, 1993
- K.헤리스, 오병남 역, 「현대미술-그 철학적 의미」, 서광사, 1989

ABSTRACT

The Study of internal communication with a piece of the human figure Sculpture -Focused on my work-

Kim, Joon Ki

Department of Sculpture of
Graduate School
Sung shin Women's University

The arts of an age flatly show how that particular age defined human beings. This is because the arts which are the product of mental activities of human beings reflect the inner world of human beings, and the inner side forms and grows through their lives.

In addition, the desire for expression through arts is a human basic mental activity and primitive original nature. A human being comes to have an opportunity to release the boundary between his or her inner side and the outside and see himself or herself in new lights through arts, which then act as a venue for fostering a consensus between himself or herself and others. The industrialization, supported by the modern scientific culture, prescribes the value of this age by material and degraded even human beings to an integral part of society. The truthful communication desperately required of human beings as a social existence has come to face the crisis of human identity due to severance, isolation and estrangement.

The interruption of communications has been accompanied by psychological pathology, giving birth to the moderners' mental

characteristics such as emptiness, solitude and anxiety.

The writer attempted to face the issues of the reality drawing near to an individual life of a human being who lives in this age and psychological conflict through works. For the writer, creation is a window of communications and a cure for inner traumas.

This thesis attempted to study my current works overall with the mental background of work formation and the analysis between individual works based on the works done between 2003 and 2007 as their substance.

Thus, the preface mentioned about the method and purpose of this study and Chapter 1 of the main subject described the meaning the communication has for a human being and the mental background of the works that expressed a sense of crisis in the inner side due to the interruption of the moderners' communications with human body along with the curing function in 3 paragraphs. Chapter 2 depicte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works by dividing them into 2 paragraphs; that is, image expressions and space production and in Chapter 3, a substantial, expressive analysis was made of such works. In the conclusion, the findings of a study were suggested as a momentum for a new horizon.